

노비·직업·역병·재테크...9개 키워드로 본 조선의 민낯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책

카페에서 읽는 조선사

표찰될 지음

“왕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의 처지는 이토록 비참했다. 비단 세조뿐만 아니라 중종반정으로 왕에 오른 중종은 공신 박원정을 서서 맞이했고 갈 때는 따라가 배웅했다고 한다. 인조반정으로 왕에 오른 인조도 그를 왕위에 올려준 서인에게 항상 굴복해서 결국 병자호란 때 삼배구고두례(三拜叩頭禮)의 치욕을 겪었다.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차남 왕도 마찬가지였다. 광해군은 신하들에게 쫓겨났고, 효종은 스승 송시열의 등쌀을 견디지 못해 기해독대라는 조유의 정치적 장면까지 연출했다. 방계인 선조와 철종은 신하들의 대립 속에 자리를 지키는 데 급급했다. 우수한 학자 신하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왕 노릇하기 어려웠던 것이 조선의 정치였던 것이다.”



‘카페에서 읽는 조선사’는 제목부터 눈길을 끄는 책이다. ‘카페’와 ‘조선사’라는 두 어휘가 주는 이질감 때문이다. 커피와 차를 마시는 편안한 공간과 당장 500년의 역사로 치환되는 조선사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살롱문화가 번성했을 때, 클래식을 들으며 문화를 향유하던 서양인들이 있었다. 비록 시공간은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상이하지만, 오늘의 우리도 카페에서 조선의 역사를 다면적으로 볼 수 있다.

‘하룻밤에 읽는 조선사’의 표찰될 작가가 펴낸 ‘카페에서 읽는 조선사’는 아홉 가지 키워드로 보는 조선의 낯선 모습을 담고 있다. 왕, 영웅, 정치인, 출세, 직업, 재테크, 전쟁, 역병, 음식 등을 모티브로 조선의 모습을 다각도로 들여다본다.

흔히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말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오늘의 문제와 모순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입맛대로 과거를 곡해할 우려가 있다.

제시된 키워드들은 따로 분립돼 있지 않고 상호 연결돼 있다. 순서와 무관하게 읽어오 충분한 재미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먼저 ‘왕’, ‘영웅’, ‘정치인’에서는 기존의 선입관을 배제하고 인물의 의의와 한계를 짚는다. 성군은 만들어진다는 명제를 세종의 예를 보여준다. 공부를 잘했으며 유교 권위자로서 신하를 다스렸다. 반면 준비되지 못한 왕 세조는 비극을 초래한다. 쿠데타를 기획해 왕위에 오른 세조는 공신들의 등쌀에 시달렸는데, 전국을 돌아다니 이유는 공신들을 제



역사를 보는 관점은 다양하지만 ‘전쟁’이나 ‘노비’, ‘직업’ 등 일상과 관련된 키워드로 바라보면 시대상을 다면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권을 장군의 활약상을 그린 오승우 화백의 ‘행주대첩’ (왼쪽)과 노비 매매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서.



어할 수 없어서였다.

직업을 키워드로 해서는 노비와 역관이 보여주는 삶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조선 시대 노비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존재”라고 규정한다. 노비는 매매되는 특징 때문에 노예와 유사하지만 가족을 이루고 재산을 소유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저자는 “노비의 사회학적 연구는 바로 지금 우리 곁에서 비정상적이고 억압적인 고용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반문한다.

중인은 조선의 전문직이었다. 지금의 의사, 법조

인, 외교관, 무역상, 과학자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조선에서는 차별의 설움을 받았다. 오늘의 통역관을 맡는 역관은 “외교, 무역, 스파이 역할까지” 할 정도로 능력이 뛰어났다. 홍순언은 환관이 넘어서도 조선과 중국을 넘나들며 국난 극복을 위해 맹활약했다.

조선시대 밥상이 들려주는 신분의 이야기는 ‘먹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명제에 부합한다. 왕은 12첩 반상이었으며 일반인은 9첩, 7첩, 5첩, 3첩 밥상을 받았다. 특히 왕의 밥상은 화려함과 사치의 극치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양

반 또한 호화롭기는 마찬가지였다. 양반들의 음식 조리법을 소개한 장계항이 남긴 ‘음식디미방’에는 146종류의 음식 만드는 법이 소개돼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윤요호 사건을 통해 본 전쟁의 모습과 질병이 왜 재앙이 되었는지를 조명하는 역병 부분도 흥미롭다. 한마디로 ‘조선의 다양한 얼굴’이 펼쳐진다. 저자는 “조선을 하나로 정리하기보다 500년의 역사 속에 얼마나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사건과 삶이 있었는지 소개하려 한다”고 의미를 말한다.

〈인물과사상사·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녀, 여자, 다른 사람들

베나딘 에바리스토 지음, 하윤숙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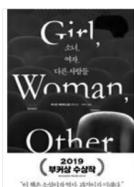
지난 2016년 소설이 한강이 부커상을 수상하면서 일반 독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부커상. 노벨문학상과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부커상은 세계적 명성과 파급력이 있다.

해마다 해외 언론을 비롯해 세계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데, 특히나 2019년에는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다름아닌 영예의 수상 주인공으로 두 명의 작가가 선정됐던 것. 한 명은 캐나다 출신의 마거릿 애트우드라는 널리 알려진 작가였지만 다른 한 명은 문단의 최초 흑인여성 수상자인 베나딘 에바리스토였기 때문이다.

에바리스토의 장편 ‘소녀, 여자, 다른 사람들’은 2019년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중 하나로 꼽힌다. 부커상 외에도 브리티시시버워드, 인디버워드 등 굵직한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선데이타임스’ 29주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소설은 흑인 영국 여성들의 이야기를 줄거리로 펼쳐진다. 레즈비언 연극 연출가 ‘엠마’를 중심으로 1800년대 후반부터 150여 년에 걸쳐 혈연이나 친분으로 이어져온 여성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모두 12명 여성은 작가가 마치 12개의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여성들의 면면은 다채롭고 이색적이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어두운 상처가 있거나, 비주류의 삶을 살면서 주류와 투쟁하거나, 고난 속에서도 삶을 향한 의욕을 잃지 않거나 등등 저마다 상이한 처지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기득권-백인-영국인-남성에 의해 좌절하거나 억압당한 삶, 폭력에 짓눌리고 비틀린 여성의 삶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특징을 지닌다.

작가는 저자와 독자를 향해 묻는다. “당신의 삶은 어떤 빛깔인가요?”



〈비채·1만7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진실에 복무하다

권태선 지음

리영희(1929~2010) 선생을 가리켜 ‘글쓰기와 사회적 실천을 통해 사상과 언론 자유 확대에 기여했던 비판적 지식인’이라 말한다. ‘사상의 은사’로 불렸던 그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자유’ 등의 저자이다.

리영희 선생 타계 10주기를 맞아 그의 삶을 조명하는 평전이 출간됐다. ‘진실에 복무하다: 리영희 평전’은 자신의 삶을 삶 속에서 실천했던 인간 리영희를 보여준다. 한겨레신문 편집인을 역임한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고인의 일생과 작업,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글을 썼다.

저자는 리영희가 평생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에 복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변방’의 의식에서 찾는다. 한반도 최북단 변방인 평북 운산에서 출생했지만 학업을 위해 상경한 뒤 분단과 전쟁을 겪었다.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진학한 공업고와 장학금을 타기 위해 택했던 해양대학 졸업이 전부였다. 기자와 대학교수로 활동하면서도 권력의 시혜를 바라거나 기회주의자로 살지 않고 시대를 깨우는 언론인의 길을 걸었다.

리영희는 통역장고를 거처며 향상된 영어 실력 덕에 외신기자로 활동하게 된다. ‘뉴욕타임즈’ 등 해외 주요 매체 기고를 통해 4·19혁명 등 국내 소식을 해외에 알렸다. 또한 박정희 미국 순방에 동행했을 때는 현지 조사를 통해 정부의 발표와 다른 미국의 냉담한 입장을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평생 비판적 성찰과 지식인의 책무를 다했던 리영희. 그가 마지막까지 하고자 했던 말은 아마도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진실이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밖에 백영서 연세대 사학과 명예교수와 최영목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엮은 ‘생각하고 저항하는 이를 위하여 리영희 선집’도 함께 발간됐다. 〈창비·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화를 만든다는 것

제이미 톰슨 스티븐 위염, 이다혜 옮김

영화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영화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좋은 영화와 나쁜 영화의 차이는? 영화 제작자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영화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엘프리드 히치콕, 로베르 브레송, 장 뢰 고다르, 쿠엔틴 타란티노, 크리스토퍼 놀란, 팀 버튼 등 영화인들의 말을 엮은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출간됐다.

이 책을 엮은 제이미 톰슨 스티븐은 15년 동안 장편영화 개발 분야에서 시나리오, 지식재산권 옵션 계약 검토, 작가 고용 등을 진행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화인들의 목소리를 이 책 속에 담아냈다.

저자는 영화감독을 필두로 제작자, 시나리오작가 등 110여명의 영화인들의 영화에 대한 ‘한마디’를 모았다. 주 내용은 작가 이론부터 관객의 중요성, 창의적인 과정, 좋은 이야기의 가치 그리고 쇼비즈니스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눈에 띄는 대목 가운데 하나는 프랑스 영화 이론가 앙드레 바쟁이 몽타주(편집)에 대해 정의한 부분이다. 앙드레 바쟁은 “표현된 사건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관객에게 강요하기 위해 여러가지 처리방식을 공급해주는 무기”가 바로 편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저자는 영화를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전한다. 아울러 성공과 불안, 재능과 실패, 아름다움과 폭력 등 영화부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풀어낸다.

번역을 맡은 ‘씨네21’의 기자인 이다혜 작가는 특정 영화나 영화감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주석을 통해 비하인드 스토리를 첨가했다.



〈지노·1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